

화학기업, 베트남 구매사절단 참여

한국수입업협회가 베트남에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파견한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 및 코트라(KOTRA)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수입업협회 이주태 회장이 이끄는 구매사절단 190여명이 7월18일 3박5일 일정으로 하노이를 방문한다.

구매사절단은 IT(정보통신)와 에너지, 화학, 건축자재, 농수산물 등 10개 업종의 114사가 참여해 역대 최대라고 한국수입업협회는 밝혔다.

사절단은 7월19일 베트남 정부와 재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산업·무역 설명회에 참석한 뒤 개별 수입상담에 들어갈 계획이며, 수입업협회와 베트남 관측통들은 방문기간에 약 5000만-1억달러의 구매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수입업협회는 2011년 10월 하노이에서 베트남무역진흥공사와 민간무역협력위원회 설치 등 민간부문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7월18일 방문은 한국과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의 한국 무역적자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양국 교역은 2011년 186억3000만달러에 이어 2012년에는 2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베트남의 무역적자가 2011년에만 84억7000만달러에 달해 적지않은 교역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에 원유, 커피, 해산물, 고무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2/07/16>